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 성황리 마무리

5주간 매주 토요일 판소리 매력 알려

소리의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판소리 공연 콘텐츠인 '2026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11일 열린 박록주제 홍보가 공연을 끝으로 지난달 14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2026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에서는 △동초계 수궁가(소리 김찬미, 고수 이명식·박천음) △김세종제 춘향가(소리 김정배, 고수 안태원·김태영) △박봉술제 적벽가(소리 조정규, 고수 양성태) △강산제 삼청가(소리 양혜일, 고수 안태원·김태영) △박록주제 흥보가(소리 박성우, 고수 전계열·추지훈)가 차례로 펼쳐져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깊이 있게 담아냈다. 특히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공연은 시와 (재)우진문화재단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 티켓박스와 전화예매 등 사전예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 결과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전국 각지의 국악 관계자,



소리의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판소리 공연 콘텐츠인 '2026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학생들까지 다양한 관객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공연 내내 관객들은 '얼씨구, 좋다' 등 추임새로 호응하며 소리꾼과 고수와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내 판소리 특유의 흥과 멋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특히 올해는 소리꾼들의 세대교체가 두드러졌다. 예년에 비해 젊은 소리꾼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도 판소리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이어가며, 더욱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판소리 완창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최미영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전주시는 판소리의 본향으로서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판소리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기획공연으로 다채로운 춤 매력 선사

익산예술의전당,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 무용·융복합 댄스 공연 개최

익산예술의전당이 완연한 봄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 두 편을 준비했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25일 국립현대무용단의 어린이 무용 '얹! 얹! 얹!'에 이어 26일 융복합 댄스 공연 '비트 온 포인트(Beats on Pointe)'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현대무용의 섬세한 감수성과 장르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이들 동안 다채로운 춤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어린이 무용 '얹! 얹! 얹!'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움직임의 작은 성공을 위한 시도들'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도전과 성장의 과정을 따뜻하게 풀어냈다. 녹음이 짙은 거대한 나무 조형물이 설치된 무대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무용수들의 동작은 생명력 그 자체를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작품의 안무는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의 창단 멤버인 박성훈과 이정주가 공동으로 맡았으며, 2024년 초연 당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6일 오후 2시 소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는 융복합 댄스 '비트 온 포인트(Beats



on Pointe)'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호주 댄스 그룹 '마스터즈 오브 코데 오그레피'가 제작했으며, 스트리트 댄스를 중심으로 발레와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우아한 발레리나와 역동적인 스트리트 댄서의 만남을 유쾌한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내며, 음악과 유머 요소를 더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얹! 얹! 얹!'은 48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입장권은 전석 2만 원이다. '비트 온 포인트'는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입장권은 전석 1만 원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시네마 클래식'

군산예술의전당이 영화와 합창이 만나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시네마 클래식'을 오는 25일 오후 5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국립합창단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영화 OST를 매끄러운 형식으로 선보이는 무대로, 스크린을 통해 익숙하게 접해온 명곡들을 국립합창단만의 풍성하고 섬세한 하모니로 새롭게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2026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 공연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공연으로 더욱 뜻 깊다.

이름다운 합창 하모니에 영상과 조형 등 연출적 요소를 더해 입체적인 무대로 꾸며지며, 마에스트로 민인기의 지휘 아래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안무는 김민서, 사회는 아나운서 신지혜가 맡아 진행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 '시네마 천국', '타이타닉', '맘미미아', '알라딘' 등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아온 명곡들로 구성되며, 풍성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전석 1만원이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합창단은 1973년 창단 이후 50년간 한국 합창 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선도해 왔으며, 중세 음악부터 현대 창작 음악까지 폭넓은 합창곡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한국 합창의 세계화에도 힘쓰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7부 '강패와 고아' (3)

일단 돌아가 있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괜한 거짓말을 계속 해서 역시 괜한 의심을 살 필요 없다. "사실은, 박창수가 누군가를 죽여 달라고 했어요."

붉은여우의 눈이 슬쩍 커졌다가 가라앉았는데 예상하고 있는 답을 동식이 내놓았다. "누구?"

"강용대요." 그 사람이 누구데? 붉은여우가 눈으로 물어왔다. "서울에 산다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왜?"

여기서 대답을 잘 해야 한다. 잘못 대답했다간 살인을 모의한 혐의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동식의 피를 쪽쪽 빨아먹을 것이다. "내가 징역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또 들어갈 일 있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했을 텐데."

붉은여우는 힌트를 동식에게 던졌다. 동식은 움켜쥐고 힌트를 받아들였다. 현금 오천만원이 든 대봉투가 생각났다. 붉은여우가 일부터 그런 힌트를 던졌는지 아니면 말실수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동식에게는 기회다. "차원에서 오천만원이 든 대봉투가 발견되지 않았나요?"

붉은여우는 동식의 눈을 피했다. 발견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행동이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물러서 묻는 건가. 선수끼리 왜 이러시나. "박창수는 차원에서 나에게 강용대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착수금으로 현금 오천만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안 받았지요. 박창수가 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면 현금 오천만원이 현장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 모르지요. 누군가 슬쩍 했다면 없을 수도 있고요."

붉은여우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동식의 말이 맞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행동이었다. 밀어붙인 겁에 더 밀어붙이기로 했다. "다른 증거를 찾아보시지요. 박창수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은 뭐 그런 거요?"

동식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말하면서 순간 머리로 스치는 게 있었다. "녹음을 할 수도 있어요. 오천만원을 나에게 주면서 제안을 할 정도라면 근거를 남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기기 위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붉은여우는 동식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법인데 하는 표정으로 동식도 속으로 나도 제법인데 하는 흡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알았어. 일단 돌아가 있어. 다음에 또 부를 테니까."

대체 뭐하려고 나를 부른 거지? 동식은 슬쩍 기분이 상했다. "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습니까?" 동식의 목소리가 후하고 울라쳤다.

"말?" "왜 말해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죽었는 지요?"

붉은여우는 동식의 눈을 피했다. 동식은 순간 자신감이 생겼다. 붉은여우는 동식의 순간의 선상에서 버리고 있었다. "조사 중이야. 일단 돌아가 있어."

동식은 더 뒤달려라다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아, 잠깐. 우리가 지네 휴대폰 통화기록을 좀 보려고 하는데, 동의해줄 수 있나? 동의 안 해줘도 영장을 받으면 되긴 하지만, 어때?"

"그러죠." 붉은여우가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다는 건 결론적으로 동식에게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 붉은여우는 오늘 동식을 불러 조사하면서 동식이 뽑아내는 뭔지 모를 자신감을 봤을 것이다.

물론 붉은여우는 그냥 포기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무엇이든 여지를 남겨놓고 언제든 작살을 던질 준비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식은 모두 사실대로 말했다.

'사실 만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무기가 또 있었는가. 동식은 붉은여우에게 여지 없이 펀치를 날렸고 당당하게 경찰서를 나왔다. 배수욕을 찾아보기로 했다. 동식을 고창행복원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라 했다. 그녀를 찾으면 동식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